

정전70주년 사업 추진 고문위원단 위촉

김황식 전총리, 김형오 전의장,
신영균 전의원 등 6인 참여

6·25전쟁 정전
70주년 사업의 성
공적인 추진을 위
해 김형오 전 국
회의장을 비롯한
각계 원로 인사들



이 6·25전쟁 정전70주년 고문위원
으로 참여키로 했다.

이번에 위촉된 고문위원들은 김
황식 전 국무총리, 김형오 전 국회
의장, 신영균 전 의원, 송상현 서
울대 명예교수, 최치훈 삼성물산
고문, 백남희 백선엽 장군 장녀로
정치, 외교, 경제, 사회 등 각 분야
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각
계 원로 인사들이다.

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
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
원들에 대한 고문위원 위촉에 이
어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
을 요청했다.

정전70주년 기념사업은 '위대한



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17일 정전70주년 고문위원단 간담회에서 고
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'이라
는 주제 아래 6·25전쟁에 대한 추
모와 기억을 넘어서 참전용사들
의 위대한 희생과 공헌을 통해 이
룬 대한민국 성공의 70년 역사를
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공
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.

이날 고문으로 위촉된 김형오
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임 중 한·
미 의회 간 외교 협력 관계 발전과
참전국인 그리스·튀르키예와 우
호 관계 증진을 끌어냈으며, 백범
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을 역임

했다.

김황식 고문은 국무총리·감사
원장·대법관 등을 역임하면서 총
리 재임 시절 참전국과 맺은 동맹
외연 확대에 기여했다.

박 보훈처장은 "정전 이후 대한
민국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표명
하고, 참전국 정부 대표 등을 초청
해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다양한
기념사업을 기획 중"이라며 "정
전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을 위
해 고문위원단과 함께 모든 역량
을 모을 것"이라고 말했다.